

# 광주시-광주신세계 ‘특급호텔’ 현안 밀려 뒷전 “물 건너 갔다”

### 광주시, 수정계획안 보완 요구 신세계, 지구단위계획 제출 보류

광주시와 광주신세계가 추진했던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민선 7기 들어 무관심 속에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도시철도 2호선·현대차 투자유치·어등산 개발사업 등 대형 현안들에 밀리면서 광주 유일의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아예 물거품 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15일 광주시와 광주신세계 등에 따르면 특급호텔 건립사업은 지난해 2월 광주신세계가 특급호텔과 함께 들어서는 복합쇼핑몰 판매시설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수정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중단된 상태다.

당시 광주시는 수정계획안을 보완해 줄 것을 신세계 측에 요구했지만 신세계 측은 지구단위계획을 시에 제출하지 않은 채 1년이 넘도록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세계 측은 인근 중소기업들의 반대로 특급호텔 사업보다 복합쇼핑몰 논란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더 쏠린 데다 대통령선거·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부담이 커져 사업 추진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이 온

라인 쇼핑몰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진 점도 한 이유로 보인다.

전임 윤장현 시장이 그동안 몇 차례 재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이후 특급호텔과 관련해 광주신세계 측 움직임은 없었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른 현안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다.

이용섭 시장이 당선된 후 꾸려진 광주혁신위원회에서도 특급호텔 건립사업은 관심을 끌지 못했고 현안 브리핑에도 오르지 않았다.

다만 혁신위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가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급호텔 등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원론적인 제안을 하는 것에 그쳤다.

광주시는 현재도 신세계 측 지구단위계획 제출의 필요성만 언급할 뿐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세계수영대회 개막에 맞춰 기획된 사업인데 이미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 특급호텔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신세계 측은 특급호텔 건립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은 없고 있지만 사실상 접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서울에서 신세계가 추진한 대형 호텔이 2곳이나 잇따라 문을 열 예정이

어서 지방 호텔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점과 무엇보다 지역 중소기업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 등으로 신세계의 입지가 크게 좁아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역 관광업계는 “신세계라는 브랜드를 놓치면 안 된다”며 여전히 특급호텔과 대형 쇼핑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광주시 관광협회 관계자는 “광주를 찾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전국 팔찌 수준인 광주의 관광 인프라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외지인들이 와서 자고 먹고 물건 사는 데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급호텔 건립사업은 현재 서구 광천동 이마트를 허물어 그 자리에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의 신축건물을 짓고 특급호텔과 백화점을 입점시킨다.

현재 백화점 건물은 터미널 내 유스퀘어와 연계한 영(YOUNG)관으로 운영하고 이마트는 인근에 새로 짓기로 했다.

전임 윤장현 시장의 제안으로 추진됐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 데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중단됐다.

/통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SOC확대 등 국토균형발전위해 힘쓸 것”

### 인터뷰 윤영일 국회의원

권력구조 개편 개헌논의도 이뤄져야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득 안정,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 윤영일 국회의원은 16일 “SOC 확대와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과 지속적인 투자,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당 안팎에서 집권 여당과의 연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는 “법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개혁 입법 연대를 구성해 주도권을 쥐고,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필두로 민생과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여야 모두 일정한 합의를 이룬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중심이 되고, 순차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방법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적폐청산은 물론 그동안 얻어보지 못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지속되는

경제와 민생 악화에 대한 대처 미흡과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정책 등에 대해서는 불만의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배 정책, 개혁과 민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건전한 비판과 정책 대안을 수용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지역구인 진도군에 향후 세월호 선체를 보존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체 보존과 거치 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염원하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방식과 지역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의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는 진도군민의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예정지인 진도군에 보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 5555kni@



민주평화당 윤영일 최고위원

# 인천시,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견... 방역 강화

### DMS서 작은빨간집모기 첫 발견 방충망·모기장 등 방제 준수 당부

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내 설치한 DMS(자동모기계측기)에서 올해 들어 처음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DMS를 지난해 인천 관내 120지점에 설치해 운영 중이며 보건소 방제 관계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지난 9~10일 사이에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처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모기방제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DMS는 이산화탄소를 유인제로 해 암모기만 선택적으로 유인한 후 개체수를 자동으로 계측하는 장비다.

일본뇌염은 잠복기가 7~14일이며 대부분 무증상 또는 발열이나 두통과 같은 가



작은빨간집모기

벼운 증상이나, 감염자의 250명 중 약 1명 정도가 심한 증상을 보이며 급성 뇌염, 수막염 등에 이환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3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첫 번째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내렸으며, 지난 6일 전남지역에서 모기의 하루평균 개체수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 전체 50% 이상 분류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상황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관내 일본



DMS(자동모기계측기, Digital Mosquito monitoring System)

뇌염 모기가 첫 발견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피체를 사용할 것과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는 등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 “시원한 물대포로 무더위 날려요”

휴일인 15일 오후 광주 북구 월출동 시민의숲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날 광주와 전남 대부분 시군에는 6일째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연합뉴스

### 평화시대 경기도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도,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중심’”

민선 7기 경기도가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번영시대를 맞아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협력시대-경기가 할 일’을 주제로 열릴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진대 DMZ연구소,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김진홍 경기도 행정부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평화분야 전문가와 정책대표, 공직자, 도민들이 모여 열린 논의를 벌일 전망이다. 특히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나서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이화영 경기도 연정(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의 시대-경기도가 할 일’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도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어 흥현의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박근식 중앙대학교, 소성규 대진대 교수, 박영민 대진대 DMZ연구원 부원장, 이재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한모니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박철수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장 등 7명의 전문가가 나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끝으로 발제자와 제안자,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종합 토론회’ 형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 국회의원) 새로운 경기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한다.

/경기 의정부=고성철 기자 ksc@

### 영광소방서

# 물놀이 시민구조대 발대

영광소방서(서장 박주익)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서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119시민수상구조대란 지역 내 해수욕장,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소방대원과 민간자원봉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사자로 구성된 구조대이다.

올해는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가마미해수욕장, 돌머리해수욕장, 안악해변, 불갑저수지를 중심으로 고정·순찰

근무를 하면서 안전활동, 응급처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및 유사시 신속한 인명 구조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남 영광=은하수 기자 ehs1203@